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4. 4. 18.(목) 11:00
- 장 소 : 시의회 2층 회의실
- 참석자 : 심사위원회 위원(6명) 및 관계자
  - 위 원 : 이종선(민주평통 대구동구협의회장), 정홍상(경북대 교수), 박순호(대구교육대 교수)  
이창재(아이뉴스24 기자), 전경원(시의원), 김태우(시의원)
  - 배 석 : 총무팀장, 상임위원회 관계자 등

### [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총무팀장 이상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위원회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2건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심사안건은 같은 조례 제2조제6호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제9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의 각 호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출장단별로 출장계획을 보고받은 뒤 일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안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시의원인 위원님은 참여하는 해당 출장단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종선 대구동구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정홍상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 박순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전경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 문화복지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세 분은 강의 및 개인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9명 가운데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항상 시민과 언론 및 시민단체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의정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공감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내실 있는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 안건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석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석 팀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지원팀장 김영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서서 보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행정·문화복지·교육위원회 3개 위원회의 통합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올해 대구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달라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공무국외출장을 갔지만 이번에는 위원회 통합으로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위원회 통합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복잡다양한 정책을 파악해야 하는 의원님들이 상임위 구분을 넘어 공무출장 중 소통·협력하여 상임위 여러 분야의 선진시스템 및 운영방식을 직접 확인·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으로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 정책 분석 및 집행의 시너지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출장목적에 맞는 출장지와 일정 방문기관의 선정을 위해 금년 1월 초부터 지속적인 시장조사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국외출장 취지에 맞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자료 1페이지에서 2페이지입니다. 출장목적은 해외 선진사례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 대구시 정책 및 의정활동 반영이며 출장기간은 5월 8일 수요일부터 5월 16일 목요일까지 7박 9일간입니다.

출장지는 호주와 뉴질랜드이며, 출장자는 총 26명으로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 16명과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원 10명입니다.

3페이지 출장국 일반현황과 4페이지 기관방문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출장지 선정배경입니다. 대구시는 95년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와 2003년 지하철 참사, 2023년 군위군 소보면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재난의 발생에 따른 대비뿐 아니라 현대에는 사회 재난 대응역량의 철저한 대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재난대비 매뉴얼을 포함한 재난 선진시스템을 구축한 호주·뉴질랜드의 방재시스템 및 운영방식을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현재 재난관리의 초기 대응 중에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선진장비, 재난대비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호주·뉴질랜드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산불방지와 관련하여 민간 협력체계 시스템을 구축한 방재센터를 방문하여 대구시 실정에 맞도록 재난대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중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2025년부터 대구시에도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호주의 선진화된 유보통합 시스템을 겨냥하여 대구시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지역시설 지원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돌봄정책이 발달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고령화사회와 연계하여 노인 복지 서비스를 대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호주, 뉴질랜드의 교육기관 방문을 통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우수 교육정책사례 벤치마킹, 대구형 IB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한 IB학교급 간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분석과 우수사례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통합 공무국외출장은 상임위 특정 업무를 넘어 실효성 있고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5페이지 출장일정부터 18페이지까지 개인별 임무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기관방문 세부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방재센터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산불 진압 전문기관으로 호주의 체계적인 산불대책, 재난 대응 시스템 분석을 통한 산불방지 대응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드니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국가, 지방 정부, 민간기관의 아동복지지원 체계, 우수 아동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안전대책 등을 파악하여 대구시의 실효성있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선진 지방의회시스템 파악 및 동향분석을 위해 호주의 라이드시의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라이드시의의회는 한국인 시의원 2명이 선출됨에 따라 한글학교 확보, 한인사회 인식 개선 및 해외교류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견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드니 버우드 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견학하고 우수한 다문화교육 정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 교육현장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드니 올림픽파크를 방문하여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대구시의 합리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뉴질랜드 최초의 IB 월드스쿨로 지정된 크리스틴 학교를 방문하여 IB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대구형 IB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해 선진 운영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뉴질랜드 소방비상국을 방문하여 재난발생시 대응체계 및 재난대비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방안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로토루아 파크사이드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여 우수노인 복지 정책과 봉사단체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를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항인 출산, 이민, 노인복지 등의 분야에 대해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행·문복·교육 분야 정책 발굴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충실한 정책집행의 기반이 되고 의정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박대식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위원회 박대식 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정책지원팀장 박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앞서서 보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회도 작년까지는 개별 위원회 단위로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했지만 올해에는 통합 출장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경제환경·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이번 경제환경·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일정은 2024년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7박 10일에 걸쳐 아랍에미리트,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출장대상은 총 19명으로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4명,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6명, 황순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6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출장목적과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 풍부한 녹지 공간조성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도시 교통난 완화 및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편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출장에서는 우리시의 당면 현안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현재 공항 박람회 개최되고 있고 공항 프리존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다양한 문화 수련 공간,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친환경 교통 시스템 인프라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경제산업, 환경, 건설교통 분야의 선진 정책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방문지 및 출장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두바이 공항 박람회에 참석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공항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하여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대구 공항엑스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팜주메이라를 방문하여 우리시 공항 후적지의 두바이식 개발을 위한 도시 랜드마크 건설 및 관광효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두바이 공항 프리존를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기업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조성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는 도시 랜드마크를 활용한 도시경관이 돋보이는 뮌헨 구시가지에 방문하여 대중교통 시스템, 마리엔 광장 등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계획 현장을 시찰하고 향후 우리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올림피아파크 견학을 통해 수변 공원 조성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등 5대거점 수변개발사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호수를 방문하여 자연 산책로 및 하이킹로를 시찰하고 수상 레저, 광장 등 우리시 수변공간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힐링 숲길 조성 등 산림녹지 사업에 도입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린츠의 솔라시티를 방문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개발 사례를 시찰하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재생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체코에서는 다양한 상점, 공예품점, 예술 갤러리가 있는 체스키크롬로프 전통 시장 견학을 통해 우리시의 전통상권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체스키크롬로프 성을 둘러보고 역사 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크네지체 에너지 자립마을을 방문하여 에너지 자립 사례 및 녹색 건축물 단지를 시찰하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 정보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스트리아의 국제원자력기구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환경 및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무국의 출장계획은 경제환경·건설교통분야 국외 선진현장을 시찰하여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위원님들의 풍부한 고견으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환경·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국외출장하면 다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사항과 저희들이 보통 심사 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의를 할 때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의 문제점 또는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 두 가지인데 가는 시기가 적절하냐는 시기 적절성만 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프로그램 자체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시의성과

적절성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주신 자료에서는 지금 시기가 5월달인데 5월달에서는 의사일정 등 의회에 다른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져도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석 팀장]

5월달에는 회기 일정이 없습니다.

### [○○○ 위원]

구성 자체가 이거는 두 건 다 포함인데요. 예전에는 뭐 개별로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는 통합으로 한다고 하는데 통합 추진의 이유 중의 하나가 의원들 간의 위원회가 다른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인터랙션의 강화 상호작용의 강화인데 속된 말로 의원들이 며칠 해외에 같이 나가 있으면 상호작용이 강화됩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의원들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위원회 간 상호작용의 강화라고 이야기해서 통합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냐는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잘 못 됐다 잘 됐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건 다 공통된 사항으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보다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보 통합 예를 들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나 또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 때로는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대구시 역점사업 또는 대구시 추진사업 또는 대구시가 다른 곳과 다르게 지방자치 관련해가지고 하는

차별화된 사업 그 사업의 추진이나 관련해서 어떤 이슈나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과 관련돼서 살펴보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프로그램의 적절성이 확보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언급들만 많고 대구시의 어떤 사업과 관심 사업이 있는데 그 관심 사업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자료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게 적절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걸 이야기하실 때는 이 대구시의 구체적인 사업 또는 구체적인 정책이 지금 가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 간의 연관성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포장을 잘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보십시오. 아까 말한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기획문화교육위원회인데 같이 통합해 가지고 기획행정 관련된 거 하나 문화복지에 관련된 거 하나 교육에 관련된 거 한두 개 이래요. 다른 위원회에서 가서 살펴보고 하는 게 없어요.

같이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살펴봐도 첫 번째 기획행정·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이쪽 파트에서 라이드시의회 방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라이드시의회 방문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라이드시의회 방문이 우리시의회와 맞는가?

라이드시 인구가 12만명인데 대구시 우리하고 뭘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 방문하는 건가요? 구의회로 방문합니까?

대구시와 비슷한 그 정도의 의회 방문을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는데 대구시에 어떤 시사점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그 쪽에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시장이 의장을 겸임하는 제도의 시스템이에요. 우리하고 뭘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거는 글썄 어떤 적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력이 준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는 살펴보기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그걸 가질 수 있는지 다른 자료에 비해서는 이 자료에 대한 설득력이 더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자료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관련해가지고 연관성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라이드시의회에 관련된 자료는 거기에 확보가 안 된다.

제가 볼 때 그렇단 말이고 여기서 디펜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제환경·건설교통위원회는 사실상 앞에 건에 비해 말입니다.

외유성에 가깝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관광지 방문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앞에 것보다 더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보면은 놀러 가는 거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시설이 우리가 하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추가 돼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이것들이 어떤 당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외유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연계성이 있어야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에 기획행정·문화복지보다 외유성의 냄새가 짙다.

두 번째 그런 거 하고 관련해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IAEA 기관을 시찰한다라고 하는데 대구의 역점 사업이 원자력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주시죠.

그러면 경북에서 IAEA 방문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구가 원전하고 뭘 상관이 있어서 그걸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제기한 거는 일반인이 봤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거 하면 업체 선정해가지고 하잖아요.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기존에 했던 업체가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건지 이 업체 선정 과정이 예를 들어서 조금 투명성이 확보되는 건지 계속 했던 걸 쪽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프로그램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시민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업체 선정에 관련된 것들을 궁금해할 것 같고요. 구성이 이전하고 다른 제도로 위원회별로 갔는데 통합으로 가서 말씀 주시는 거기에 인터랙션과 위원회 간 상호작용 그걸 통한 통합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과연 설득이 있겠는지 그 며칠 봐가지고 그림 그동안은 한국에 있으면서 대구에 있으면서 뭐했습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또 5월달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다니까 어떻게 보면요.

물론 일정이 크게 발생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5월달에 시기를 잡는다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놓고 보면 말입니다. 그거는 넘어가는 거고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 프로그램보다 나중에 언론에 이걸 낸다고 가정했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

대구의 중요 사업과의 연계성 대구의 관심 사업과의 연계성 대구가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사업 앞으로 대구가 미래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의 연계성이 이번 프로그램이나 장소 선정과 이야기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특히 좀 많이 부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거보다는 특히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시설과 공간 여기서 이야기 하는 아랍에미리트가 경제환경·건설교통에 관련된 그런 연계성이 많이 떨어져서 외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업체 선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복되는 말은 빼고 제가 봤을 때 3페이지에 보면 호주 뉴질랜드에 간다고 하고 시드니, 오클랜드, 로토루아 현황 내용이 적혀 있는데 목적하고 도시 특성하고 매칭이 안되는 같아요. 시드니 같으면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산불이 났다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재난 방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기가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된다 가야 되는 근거를 여기다가 주요 연수지에다가 블루마운틴과 워로노나 고원,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분지 지형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내용을 넣으면은 좀 안 낫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오클랜드 뉴질랜드도 보면은 그러니까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라는데 최대 도시가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 복지 중심지라는데 뒤에 보니까 화산 활동하고 지진이 잦은 지역이니까 자연 재해가 잦은 지역이라서 우리가 여기에 간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 가는 게 그 다음에 홍수 태풍 피해가 있다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기상 이변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로토루아 지역은 보면 로토루아 지역에서 가는 것이 이제 이쪽에 마우리족 문화와 뉴질랜드 문화 하는데 뒤에 보니까는 IB 학교와 복지 쪽으로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파크사이드 커뮤니티 센터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하는데 왜 노인복지시설을 그러니까 오클랜드에서 왜 차를 타고 여길 가야 되는지 이 시설이 어떠한 뉴질랜드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클랜드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좀 하나 부각시키면은 ○○○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이렇게 포장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은 앞에 대구에 이런 인재가 많이 나온 거를 하는데 바로 밑에 단락에서 보면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대비 이런 게 나와요. 대구의 내용은 인재이고 뉴질랜드는 자연재해인데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은 갖추기 위해 방문한다는 것이..

이제 ○○○ 위원님이 좀 더 큰 거를 짚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이너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6페이지 표에서 보면은 작년 산불 현황과 4월 1일까지 산불 건수로 해가지고 정수로 나오는데 10년 평균을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소수점 나와요.

그 다음에 2023년에 이제 정수로 나오는데 이게 평균을 내니까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통일을 시키면 어떨겠나 그리고 대구가 이렇게 발생 빈도가 높다는 걸 나타내고 장황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까지 필요가 있겠나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 여기서 보면은 79.2%를 차지해서 작년에 산불이 유난히 많다는데 비율이 왜 그런건지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은 호주는 연방 국가고 우리는 연방 국가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게 시의회를 아주 작은 시의회를 방문한다는 거는 다시 좀 이렇게 우리랑 레벨을 맞춰서 가는 게 안 맞겠나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인회를 만나가지고 인구 정책을 의논한다는데 한인회가 호주에서 인구 정책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호주 정부의 정책이지 그리고 호주가 출산율이 낮지만 인구가 증가 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대구도 보면 출산율을 좀 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민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거에다 좀 초점을 맞추고 아니면은 대구에 있는 고려인이라든지 조선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오는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인회도 이민을 갔으니까는 고려인 단체도 있고 우리가 조선인 단체도 있으니까는 우리 교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H 비자라든지 F4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살 것인가 하는 거를 서로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인회를 방문한다는게 안 낫겠나 싶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로토루아를 가야 되는 거는 명백하게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꼭 가야할 이유를 밝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이 다른 시드니에 없는 뭐가 있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은 작년 올해 내년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2024년 아니면 내년이면 2025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명시하는 것이 좀 더 객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기 호주에서 하고 뉴질랜드를 가는데 호주도 다 시설이 있고 우리가 뉴질랜드를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러면은 뉴질랜드는 보면은 이제 마우리족 등 소수민족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언어도 두 개 언어가 공용으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더 다문화가 호주는 백인 위주지만은 뉴질랜드는 마우리족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렇다는 것을 부각 시켜가지고 다문화적인 특성이 많은 것이 뉴질랜드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균위 같으면은 농어촌에 보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호주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지만은 도시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뉴질랜드 자체는 인구가 한 450만 명 정도 밖에 안되요. 이제 면적은 넓은데 주로 또 그 사람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해가지고 먹고 사니까는 군위가 대구에 편입이 돼서 달성군도 편입이 됐고 그러면 달성군과 군위 같으면은 주로 경제 수입이 1차 산업에 종사하니까는 그쪽 지역을 우리가 살펴봐가지고 이제 군위의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덧붙이면은 제 생각에는 뉴질랜드 가는 게 좀 타당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은 버우드 여자고등학교에서 이거는 보면 좀 웃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영어가 아닌 영어 외 다양한 제2외국어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영어가 제1언어고 그 다음에 하나 제1외국어가 한국어라든지 프렌치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걸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 한국어처럼 지금 다 배우는 거고 외국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것이 꼭 다문화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외국어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세계화에서 뒤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6학년 아니면 7학년부터 외국어를 선택해서 스페인어나 아니면 프렌치나 이런 걸 언어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외국어 때문에 버우드 여자고등학교를 간다는 것보다는 버우드 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러 간다 하는 걸로 좀

접목을 해가지고 이거를 호주에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걸로 아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B 과정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호주에서 버우드 여자 고등학교에 IB 과정이 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석 팀장]**

IB는 버우드가 아니고 크리스틴 학교이고 여기가 최초로 IB 과정을 신설 해서 운영했습니다.

**[○○○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일정에서 제가 봤을 때 5월 11일 날 4일 차에서 시드니 포트스테판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현장 견학을 하고 각 기관 방문결과 중간 점검을 한하는데 포트스테판이 어떤 곳이에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석 팀장]**

시드니가 항구 도시인데 관광산업이 발전해서 관광 쪽으로 특색이 있는 장소입니다.

**[○○○ 위원]**

시드니 안에 있는 스팟이다. 그렇죠? 시드니 전체가 항구 도시이고요.

그리고 일정에서 보면 오클랜드에서 로토루아까지 가는데 가는 거는 4시간 로토루아에서 오클랜드로 돌아오는 것도 4시간이에요. 그럼 8시간을 들여 가지고 구태여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을 가는 게 맞는가?

##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석 팀장]**

로토루아에 커뮤니티 센터 돌봄 커뮤니티 센터가 잘 돼 있다고 특색 있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한번 견학하면은 저희 시정의 복지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 **[○○○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드니에는 뭐가 없어서 여기 갈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가 지나가는 경유지 지나가는 도시이면 거기가 들러 가도 되지만 그걸 목적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왕복 8시간을 소비하고 그러면 하루를 잡는데 이거를 꼭 가야할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보면은 경제환경·건설교통은 프로그램이 더욱 단단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랍에미리트나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는 제가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외유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프로그램이 더욱 긴밀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환경위원회 박대식 팀장]**

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5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경제, 환경, 건설, 교통 그리고 문복위원장님 한 분 가십니다. 문화관광 그래서 이 5가지 소주제로 하고 근데 좀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 대구시에게 중요한 것은 길 닦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길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문화와 경제 교류 같은 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늘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아닌가 그래서 마침 두바이에서 공항 박람회 에어포트쇼가 진행되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저희들이 도착하는 날이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잘 만들고 관련된 공항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대구시 미래 먹거리의 핵심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반 정도는 공항 박람회 참석과 그 다음에 프리존이 있습니다.

공항 물류 단지 비슷하게 기업도 유치하고 또 물류 창고로도 쓰고 작년에 시장님께서 갔다 오신 곳인데 저희들도 방문해가지고 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 아닌가 대구시 미래 먹거리의 키 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 역점으로 저희들이 두바이에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환경, 그다음에 도시 개발, 교통 근데 아무래도 가장 좀 이렇게 짜다 보니까 역점을 두는 게 도시 개발 지금 작년에 순위가 이번에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개발 수요가 많을 거다. 그래서 무분별한 도시 개발보다는 특히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 도시 개발을 잘 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또 의원님들도 그걸 많이 관심 있어 하시고 그래서 린츠 솔라시티 한 20만 정도의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대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의원님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고 또 가치가 그 정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분야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큰 주제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소주제로 5개 정도 짜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으면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이제 솔라시티 린츠 이런 거는 지금 대구도 도시 재생 사업이 있잖아요. 혹시 그거를 접목해가지고 도시개발보다는 대구 시내에 이제 도시 재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 [○○○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비교해서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동소이하고 이걸 잘못했다 또는 비난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게 바깥에 나갔을 때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공박이 들어올 수 있고 특히 디펜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은데 지금 팀장님 말씀 주신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 개발일 수도 있고 도시재생일 수도 있고요. 대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 개발에 관한 관심이 있고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시 개발과 도시재생인데 대구가 하려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 개발과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는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다 그리고 그런 방향과 관련해서 찾아보거나 사례를 유의해서 살펴보는 시설이나 구현된 데가 이런 데니까 요 방향과 방문 시설과 관련해서는 중간 단계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과 선정한 것 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그 고리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리를 연결시켜줘야 그거는 지금보다는 더 강하게 연결시켜줘야 외유성이 아니다라는 말에 디펜스 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그런 형태의 연관성이 필요하다.

두바이 정부 관계자와 두바이시 개발 비전 전략 관련 의견 교환이 우리 하고는 뭐 필요해요. 두바이 개발 비전이 우리하고는 우리 대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저기서 던질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거고 거기에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연계 작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다시 검토해 봐라. IAEA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 내려진다. 이 말입니다. 라이드시 이상한데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포장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포장 이라는게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또는 시군구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형태인데 저기는 다른 형태기 때문에 다른 형태가 구현된 사례를 봐서 우리 쪽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제목이나 시군 통합이나 메가시티 이야기나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식 논리를 조금씩 맞춰 주면은 그 말의 설득력을 더 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합니다. IAEA도 마찬가지로 소형 원자력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면 경북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경북하고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대구에서 소형 원자력과 관련된 SMR과 관련되어지는 뭔가가 우리 쪽에 지금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연결 고리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적 사항이 많아서 여기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석 팀장]**

업체는 기존 업체와 다릅니다.

### **[경제환경위원회 박대식 팀장]**

저희도 작년과 다릅니다.

### **[○○○ 위원]**

공모를 하나요? 전부 다 프로그램을 다 기획할 때는 누구 업체를 끼고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 [관계 직원]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할 때는 각 의원님들에게 여비가 지급이 되는 거고 대행하는 업체들은 이제 항공권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행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행사 대행을 하는 것이고 일정을 짜는 부분들은 각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구역에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골라 선택을 해서 그 쪽과 컨택을 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 업체는 항공이나 이런 것들 하는 여행사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 [○○○ 위원]

그게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하는 걸 보면 위탁 업체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었어요. 이걸 이전에 했던 곳에서 계속 한다던지 그런 것들도 제기하는데 지금처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디펜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 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는 이번에는 구성을 달리 하잖아요.

그쵸? 위원회 통합을 하는 것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보면 위원회의 특화가 아니거든요.

이 쪽 보면요. 그쵸? 위원회와 관련 있는 사업 한 두 개 위원회와 관련 있는 사업 한두 개 다 보면 전체로 놓고 보면 다른 관련이 있는 데 가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던 위원들 간 위원회 간 인터랙션이라는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민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디펜스 논리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던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번에는 그걸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르게 시도해 보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든지 또는 의회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어느 하나의 의정에 관련된 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이지만은 전체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키우기 위해서 비슷한 것 끼리 묶여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논리를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지에서는 최고 선진국형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호주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셔서 적절하게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을 보면 짧은 기간에 여러 나라를 방문하시고 강행군이신데 하시기 전에 물론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사전에 기관들에게 요청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받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된 심사 기준을 표시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표결 및 집계>

## [위원장]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획행정·문화복지·교육위원회와 경제환경·건설교통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의 건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출장 담당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하신 고견을 출장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